

주요불교사전

사전명	출판사	출판년도	가격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61	2만5천원
한국불교대사전(전7권)	명문당	1982	각권 3만5천원
불교학대사전	홍법원	1988	8만원
불전해설사전	민족사	1989	1만7천원
한국불교사학대사전	보림각	1991	16만원
한국불교인명사전	불교시대사	1993	2만원
빠알리어사전	한국불교대학	1994	7만원
한국불교사찰사전(상·하)	이화문화사	1994	8만원
선학사전	불지사	1995	4만5천원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4만5천원
불연사전	우리	1997	2만원
선사감상사전	민족사	1997	6만3천원
불교철학대사전(상·하)	이화문화사	1998	4만원
밀교사전	홍법원	1998	7만원
불교대사전(상·하)	홍법원	1998	22만원
불교용어사전	경인문화사	1998	8만5천원
가산불교사람(전행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	각권 11만5천원
고려대장경이체자전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20만원

‘불교학 성과물’ 더 쉽게 만났으면 ...

불교사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용어의 산스크리트 원어 그리고 음역·의역된 한자어의 뜻, 용법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불교사전은 이 같은 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불교사전보다는

국어사전의 풀이가 더 쉽고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불교사전은 왜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불교사전이 불교학의 최종 성과물이 돼야 한다’는 전제에 불교사전의 중요성과 현황 그리고 현대 사적 편찬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불교사전의 문제점 및 과제 = 불교사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용성과 창의성 부족일 것이다. 사전이 불교학문의 지침서로 용어나 인물 등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교의 이해 부족과 맞춤법의 오류 그리고 일본사전 답습 등 어렵게 읽히는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불교사전의 대체적 편찬 경향이 단순한 글자 해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일본사전이나 기존 사전을 옮기는 답습의 차원을 뛰어넘어 창의성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사전’ 왜 중요한가

△근대 이전의 불교사전 = 대장경에도 사전이 있었다. 요즘과는 다르지만 옛 학자들이 대장경을 보는 지침서로 활용한 대표적 책이 《현응음의》, 《일체경음의》, 《법원주림》이다. 《현응음의》는 현존하는 음의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화엄경》에서부터 《장엄리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458종 2천2백권을 골라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고 난해한 글자를 해석해 놓았다. 이 책이 바로 불교사전의 효시인 셈이다. 이 책을 토대로 당나라 때 해람 스님이 5천7백여 권의 경전에서 3만6천여 개의 어려운 글자와 용어를 골라 해설해 놓은 것이 《일체경음의》다.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대체로 각 권마다 12종 57권의 경전에 수록된 360개의 용어들을 주석하고 있다. 《법원주림》은 1백권으로 여러 경문에 실려 있는 모든 사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법수도 있다. 사제, 육도, 십이인연 등 숫자로 분류하여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법명명수경》, 《대명삼장법수》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화문화사, 《선학사전》(불지사), 《밀교사전》(홍법원), 《불교대사전》(홍법원), 《불교용어사전》(경인문화사) 등 10여 권이 쏟아져 나왔다.

△불교사전의 현황 =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전은 약 20여종이다. 이 가운데 완성도의 측면이나 사전적 기능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없다. 그 중에서 불자들에게 오랜동안 사랑 받고 있는 사전은 운허 스님이 편찬한 《불교사전》(동국역경원)이다.

《불교대사전》(상·하), 《밀교사전》이 그 결실. 홍법원이 불교사전 출판에 뛰어들어 준 것은 지난 83년, 무진장 스님이 일본의 ‘불교학사전’ 번역출판을 권하면서부터다. 4년여간의 번역작업 끝에 《불교학사전》을, 다시 10년 만에 2권으로 증보된 《불교대사전》(상·하)을 출간했다. 그러나 김정길 원장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용성 있게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사전 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올 3월경 불교계 최초로 큰사이스 불교사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법원은 《불교인명사전》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의 대표적 고승과 재

불교철학을 집성한 《불교철학대사전》(전2권, 이화문화사를 비롯 《선학사전》(불지사), 《밀교사전》(홍법원), 《빠알리어 사전》(한국불교대학), 《선사감상사전》(민족사) 등도 있다. 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국내의 15만여 항목의 불교술어를 결집하고 있는 ‘불교종합 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전>을 내놓을 수 없다. 모두 15권으로 완간 될 이 사전은 현재 한국불교관련 항목과 인도불교에서 유럽불교학에 이르기까지 불교술어를 서술한 ‘1·2’ 항목 1·2권이 나왔다. 이 달 중에 ‘1·2’ 항목인 3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은 최근 <고려대장경이체자전>을 펴냈다.

한문·역사·문화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전문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랜 산고 끝에 출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품이 들지 않는 사전은 좋은 사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불교사전이 한갓 고급의 서재를 장식하는 시대가 지났다. 서가 속에 저만치 떨어져 쫓겨 있는 ‘남’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조언하는 ‘신행의 동반’ 그리고 대장경을 보는 ‘도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은 사전 이용을 생활화해야 하고, 양심있는 출판인과 편집자 그리고 종단이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운허스님과 ‘불교사전’ ‘사전만들기’ 화두삼았다

강사시절 구상 1961년 ‘초반’

근대 불교사전의 효시인 《불교사전》의 탄생은 대장백이었던 운허 스님(1891~1980)의 원력으로 가능했다. 교직생활을 하다 1921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스님은 이후 법어사, 개운사 강원에서 경학을 닦았으며, 1932년에는 봉선사에 불교강원 설립하고 동학사, 해인사, 통도사 강원 등에서는 오랜 강사생활도 했다. 스님은 강사생활을 하면서 《화엄경》, 《사비수장》 등 20여권의 경전을 번역 출판했다. 불교사전의 시작도 이 때부터다. 경전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사찰·인물·용어 등 각 항목별로 카드를 만들어 목록을 정리했다고 한다.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은 “운허 스님은 6.25때부터 사전 편찬을 위해 카드를 만들어 항목별로 목록을 작성해왔다. 이 목록은 사과 상자 4박스 분량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다락에 보관해 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들려줬다. 보명심 보살의 경제적 도움을 계기로 시작했다. 이때 스님은 정목·법정·인환·법안 스님 등 7명과 함께 본격적인 사전편찬 작업에 착수, 1961년 선학원 법보원에서 초판을 내놓았다. 스님은 또 동국역경원을 설립, 불교용어 한글화를 위해 최현배 씨 등 불교·국어·한문 등 당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불교용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월 2회 회의를 통해 난해한 불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김종근 기자

인명·사찰·선·설화 등 20여종 발간

‘현응음의’ 효시... ‘불교사전’ 7만여권 판매

대부분 日사전 번역...전문편찬위 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은 40여 년 전에 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간했다는 점이다. 근대 불교사전의 효시이자 모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사전은, 지금까지 약 7만여권(35쇄)이 팔렸다. 맞춤법과 지명 등 고쳐야 할 점도 많지만 아직까지 이에 버금가는 사전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동국역경원에서 올해 불교사전의 미비한 점을 대폭적으로 보완 증보판을 내놓는 한편 전산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사전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전 편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가 홍법원(원장 김정길)이다. 이 출판사는 20여 년 동안 사전출판에만 전념해오고 있다. 《불교학사전》과

가사를 수록한 이 사전은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불교사전은 종합사전 이외에도 인명·사찰·설화·선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명사전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을 집성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찰사전》(불교시대사)은 1천5백여 사찰의 위치와 연혁 그리고 유적 유물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또한 불교의 기초교리는 물론 경전·인물·용어·미술·민속 등 불교의 여러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백과사전 《불교상식백과》(불교시대사)이 나와 있다.

고려대장경 이체자전 한역대장경 연구 ‘도우미’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한역대장경 연구의 기초 문헌이 될 《고려대장경이체자전(異體字典)》을 펴냈다. 이 자전은 대장경 원문 입력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3만여 종의 글자이체자를 정리한 것으로, 연세대 이규갑 교수 등 전문가를 전공한 7명의 석·박사들이 8년 각 색인하고, 정자(正字)를 찾아 자음·부수·획순 등으로 재분류해 엮은 것이다.

대장경을 연구하는 불교학자라면 누구나 원만한 자전(字典)에서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체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대장경에 나오지만 자전(字典)에는 없는 글자의 해독을 위한 사전’이라는 이규갑

교수의 설명처럼, 《고려대장경이체자전》은 대장경 ‘학(學)’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려대장경이체자전》은 기존의 이체자전과 달리 글자마다 용례, 출처, 동용 연대 등을 소개해 다양한 해석과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또한 이체자의 뜻은 한글이나 일본어 외

에 영어로도 밝혀, 서구 학자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이체자란 말 그대로 ‘뫼이 다른 글자’·형(形)·음(音)·의(義)로 구성된 한자의 이체자란 음(音)·의(義) 등이 같은 동음·동어이지만 형태(形)가 다른 것을 뜻한다. 고려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동(動)·착(著)’자로, 무려 65종으로 변형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학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천덕·내죄

참회는 파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열어보십시오. 기꺼이 끊어낸 이 어찌고 행복은 언제나 ‘나’의 의욕입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영봉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회법과 매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광휘,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르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르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 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르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회·천덕·내죄

이 양희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길지 않거니와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넌다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럼이 없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사찰·지연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시, 봉사활동을 하며 지은 시 등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히는 좋은 시들로 가득합니다.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효림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